

기소장 부록 중 증인관련사항정리

증인 증언과 일본군과의 관련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김복동, 김군자, 하상숙은 한국정신대연구소,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3권과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에 있는 피해자의 증언자료에 기초하고 일본군 관련 사항은 일본 바우넷 저팬 측의 작성자료와 일본군 관련자료를 참고하였다. 관련자료 중 굳이 밝힐 필요가 있는 경우는 자료명을 삽입하였다.

****영역하는 분께:**

지명과 인명은 가능한 한 발음을 병기하여 번역에 도움을 드리도록 노력하였습시다만 모두 영어로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한자로 그대로 노출해 두면 앞으로 보충하지요.

박영심할머니에 대해서는 북측 영문자료를 보고 보완 여부를 결정한 후에 작업하도록 하지요.

김복동

증인은 1926년 5월 1일 경남 양산에서 6자매의 넷째딸로 태어났다. 어릴적 아버지가 남의 보증을 서준 것이 잘못되어 논을 다 잃고 아버지는 이것때문에 병을 얻어 돌아가셨다. 그 후 어머니가 여섯자매를 키우셨다. 증인이 만15세가 되던 해인 1941년, 어머니의 권유로 양산초등학교 4학년을 중퇴하고 집에서 지내던 어느날이었다. 동네 구장과 반장이 계급장이 없는 누런 옷을 입은 일본인 남자와 함께 집으로 왔다.

이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데이신타이로 딸을 보내야 하니 내놓으세요”라고 했다. “아들이 없으니 딸이라도 나라를 위해 보내야 하지 않아요? 그것도 하지 않으면 아주머니는 반역자가 되어 여기서 살지 못해요”라고 말했다.

어머니가 “데이신타이가 뭐예요?”라고 묻자, “군복 만드는 공장에 가서 일하는 것이요. 3년만 일하면 되고, 그 전에라도 시집가게 되었다고 고향에서 연락을 하면 보내주니 안심하고 보내시오. 3년이 지나도 더 돈을 벌기 원한다면 더 일해도 되지요”라고 대답했다.

그들은 어머니에게 무슨 서류에다 도장을 찍으라고 강요하였다. 안 갈수가 없었다.

동네 구장과 반장과 함께 왔던 일본남자가 증인을 버스에 태워 부산에 데리고 가서 부두에 있는 창고에 집어넣었다. 창고 앞에는 군인이 총을 들고 보초를 서고 있었고 그곳엔 이미 20명 정도의 조선처녀들이 와 있었다. 대구, 진주, 김해, 의령 등에서 끌려온 처녀들이었다. 나이는 증인보다 많은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모두 혼인전이었다. 그곳서 끌려온 처녀들을 감시하며 통역을 맡고 있던 사람은 40살가량의 조선남자였는데 그는 조선인 부모가 일본에서 오래 살았다고 하였다. 다른 처녀들은 이 조선남자가 징집해 온 모양이었다. 저녁때 시모노세키행 배를 탔는데, 인솔자는 증인을 데려온 일본남자와 통역을 맡고 있던 조선남자였다.

구장과 반장이 정신대로의 연행에 앞장 섰다는 것으로 두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 1)조선총독부 산하 행정조직을 통해 지시하여 군위안부 동원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2) 군에서 사람이 직간접으로 보내 말단의 행정단위를 통해 바로 군위안부를 징집해 간 경우이다.

행정단위가 움직이고 부산의 부두에 머물 때 군인이 보초를 선 것으로 보아 1941년 조선총독 Minami Jiro (南次郎) (1874-1955)와 조선군사령부(부산지역 군-조선군사령부소속?? 사령관)의 책임이 따른다.

그리고 피해자는 조선-일본-대만-중국으로 피해자가 이동하고 있는데, 당시 조선 밖으로의 이동에 있어 철저한 조사와 감독이 있었던 점과도 관련하여서도 위 피고와 더불어 일본 수상Tojo Hideki (東條英機 1940.7-44.7 육군대신, 수상기간??) (1884 - 1948)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시모노세키에 도착하여 약 일주일동안을 부두 창고같은 곳에 갇혀 있었다. 일주일후 화물선을 타고 도착한 곳은 대만이였다. 배에서 내려서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은 농장같은 곳이었다. 사복을 입은 사람이 그녀들을 감시하였는데 일본경찰관이라고 했다. 한달이상을 그곳서 지낸후 배를 타고 廣東에 도착하였다. 배를 타기 전에 칼라가 있고 몸빼바지로 된 국방색 군복으로 갈아 입었다. 증인이 끌려간 첫 위안소는 광둥이었다.

광둥에서 내려 포장이 된 군인트럭을 타고 곧장 위생병원 같은 곳으로 갔다. 인솔자는 조선선을 떠나면서부터 데리고 갔던 일본사람과 조선남자였다. 둘은 높은 사람에게 서류를 냈고, 끌려간 여성들에겐 무조건 “하이, 하이(예, 예)하고 대답하라고 시켰다. 어느 방인가에 들어

가서 일본 군의관이 검사를 하는데, 그는 아랫도리 옷을 전부 벗고 나무판 위에 올라가서 다리를 벌리라고 했다. 생전 다른 남자 앞에서 옷을 벗어 본 적이 없는 증인은 너무나 놀라고 무서웠다. 그래서 나무판 위에 올라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쳤으나 군의관은 강제로 증인의 옷을 벗기고 아래를 검사했다.

검사가 끝난 후 한참을 걸어서 어떤 건물로 갔다. 그 건물이 위안소였다.

증인과 함께 징집된 20명이 광동의 위안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10명쯤 와 있어 전부 30명이 함께 있게 되었다. 중국인 여자 한명을 빼면 전부 조선인 여성이었다. 건물 복판에 복도가 있고 양 옆으로 방이 주욱 있었고, 방은 30개는 되었다. 각기 방을 하나씩 배치받았다. 방과 방사이에는 합판으로 된 칸으로 되어 있어서 옆방에서 나는 숨소리까지 다 들렸다. 방은 아주 작았고 시멘트바닥에 나무로 짠 침대하나가 있을 뿐이었다. 각방에는 번호가 붙어 있었고 그 밑에 위안부 이름도 붙어 있었다. 증인은 “가네무라 후유코”라고 불리기도 했고 “요시코”라고도 했다. 모두 군인들이 붙여준 이름이었는데 이동한 곳에서 여자들이 늘어나 같은 이름이 있으면 다른 이름으로 바꿔주기도 했다. 가장 많이 불리운 이름은 “가네무라 후유코”였다. 위안소에서는 이름만 일본이름으로 불린 것이 아니라 증인도 항상 일본말을 써야만 했다.

위안소에 도착한 날 처음으로 성병검사를 했던 군의관이 방으로 들어왔다. 무서워서 뒤걸음으로 도망쳐 숨었으나 그가 쫓아와 양볼을 엄청난 힘으로 때렸다. 얼굴전체가 감각이 없어 질 정도로 맞았다. 그는 시키는대로 하라고 하였고 말을 안들을 수 없었다. 반항해봐야 자신만 손해다 싶어 시키는대로 하자고 맘을 먹었다. 그러나 처음 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수가 없었다. 아래에서 피가 나오고 찢어지는 듯이 아팠다. 통통 부어올랐다. 따가워서 오줌도 늘 수가 없었다. 이튿날 다른 두명과 죽자고 얘기했다. 위안소에서 청소를 해주던 중국남자에게 1원을 주면서 손짓 몸짓으로 약을 구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그가 가져다 준 것은 독약이 아니라 빼갈이었다. 그는 술을 사달라고 하는 줄 알았던 모양이었다. 그러나 셋은 술도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라고 술을 나누어 마시고는 베란다에서 뺏어버렸다. 베란다에 빨래를 널러 나온 여자가 셋을 발견하고는 군인에게 신고를 해서 위생병이 와서 호스로 속을 씻어내렸다. 셋은 사흘동안 혼수상태로 있다가 깨어났다. 깨어나니 병원이었다. 그후 속이 해져서 석달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였다. 증인은 이일로 인해 지금도 소화가 제대로 되지않는 등의 후유증으로 시달리고 있다.

보통 때는 하루에 15명 정도의 군인이 왔지만 주말에는 많아 50명은 넘었던 것 같다. 토요일에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일요일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사병들이 왔고 5시가 넘으면 헌병이 와서 조사를 하므로 사병은 남아 있지 못했다. 저녁 7시가 넘으면 장교들이 왔고 자고가는 사람들도 많았다. 밀이 붓고 잘 들어가지 않으면 군인들은 샷쿠에 연고를 발라 들어가게 했다. 생리인줄 모르고 군인을 받다가 피가 비치면 군인들은 화를 내며 귀싸대기를 때리기도 했다

방 뒤쪽으로 문이 나있어 뒤로 나오면 밑으로 물이 흘러가도록 되어 있고 윗쪽에서는 링거줄같이 생긴 호스가 연결되어 있어서 그 곳으로 붉은 색 소독물이 나온다. 수시로 그것을 받아 밑을 씻었다. 군인이 많이 오는 토요일 일요일에는 씻을 시간이 없어 저녁에 겨우 한번 씻었다. 위안소 건물 바깥에 목욕탕이 있어서 저녁에 목욕을 했다.

밀이 붓거나 아프면 군의관이 치료해주고 나을동안 며칠은 군인을 받지 못하게 했다. 생리때는 군인을 받지 않았다. 생리때는 관리인이 문앞에 빨간 것을 붙여놓고 쉬게 했다.

성병검사는 일주일 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했다. 군의관이 숙소로 와서 나무판을 만들어 놓곤 했다. 606호 주사는 성병이 있고 없고와 관계없이 한달에 몇번씩 놓았다. 이 주사를 맞으면 피가 좋아진다고 했다. 그런데 이 주사를 맞고 나면 코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어질어

질했다.

생활은 전부 위안소 건물 내에서 이루어졌다. 밖에는 나갈 수가 없었다. 인솔자인 일본사람과 조선남자가 사복을 입고 문 앞에서 피해자들을 감시했다. 꼭 나가야 할 일이 있을 때는 군인들의 감시를 받고 나갔다.

위안소는 군대 바깥에 있었으나 위안소는 일본군인만 출입이 가능하였다. 군인들은 위안소에 들어올 때 문앞에서 관리자에게 무슨 증명서를 내보이고 대신에 표와 샷쿠를 받아서 방으로 들어왔다. 그 때마다 부산에서부터 인솔했던 조선남자인 관리인은 장부에 무엇인가를 기재했다. 표를 모아두었다가 저녁에 관리인에게 갖다 주었다. 그러면 그가 기록을 했다. 그는 일본 군복을 입고 계급장을 달지 않고 있었다. 표는 누르스름하고 딱딱한 화투짝의 사분지 일 크기의 종이였다. 밥과 청소는 중국사람이 했다. 당시 증인은 돈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도 몰랐다. 단지 밥 먹여주고 가끔 옷이나 화장품 필요하다고 하면 사다주었다. 관리인은 전쟁이 끝나면 큰돈을 주겠다고 말하곤 했다. 가끔 위문품을 나눠 주기도 했다. 관리인인 조선남자는 마음에 드는 위안부를 데리고 자기도 했으며 위안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때리고 욕도 했다.

이같은 진술로 보아 조선에서 증인을 징집하고 인솔했던 일본남자가 경영자로 보여지며 조선남자는 위안부를 포함하여 위안소 관리를 맡고 있었다. 증인이 있던 위안소는 “고아구락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고 광둥서부터 가는 곳마다 같은 이름이었다. 이로보아 위안소 형태는 위안소 경영자를 둔 군전속 위안소였으며 위안소 경영자를 통해 군이 경영을 통제 감독한 형태였다고 보여진다. 또한 위안소의 이동은 군의 명령으로 위안소 경영자가 위안부를 인솔하여 군이동과 함께 위안소도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증인 김복동이 조선에서 일본과 대만을 거쳐 廣東으로 연행되어 온 1941년의 광둥지역 주둔군은 제23군이였다. 증인과 관련되는 시기의 제23군 사령관은 이마무라 히토시 (今村均:1941.6-41.11)와 사카이 다카시(酒井隆:1941.11-43.3)였다. 증인이 간 1941년은 아니지만 1938년 말 제23군의 전신 제21군(사령관 안토 安藤利吉중장, 소속사단은 제5,18, 104사단)이 광둥지역을 침략 점령한 직후 11월 내무성이나 대만총독부에게 위안부 징집을 요청하였다. (자료) 그리고 1939년 4월 제21군의 공문서에는 광둥부근의 위안소에 약 천명의 위안부가 동원되어져 있다는 사실과 각 부대예의 위안부 배당 및 성병감염율이 기재되어 있다.(자료) 또 가해병사의 증언이나 사진도 있다. (일본측 자료 참고)

피해자 김복동이 광둥에 연행되어 위안부가 되었던 1941년에 전술한 21군은 지나파견군(총사령관 전준육대장)하에 23군으로 재편?되어져 광둥주변을 경비하였다. 그리고 1941년 12월 8일 아시아 태평양전쟁과 함께 피고인 주정용을 사령관으로 하는 제23군 특히주력부대인 제38사단은 홍콩을 공략하여 12월 25일 점령하였다. 1942년 1월 홍콩 점령지 총독부(총독 이소가이 렌스케 초?磯谷廉介)가 편성되어졌다. 1942년 1월 광주에서 홍콩으로 위안부가 이송되어졌다는 기록이 있다.(關禮雄, 『日本占領の下 香港』,お茶の水書房, 1995,98p.) 이것은 증인 김복동의 다음과 같은 증언과 일치된다.

어느날 아침 군인들이 트럭을 가지고 와서 무조건 짐을 다 싸가지고 타라고 했다. 트럭과 군화물선을 타고 도착한 곳은 홍콩이었다. 위안소가 이동할 때 트럭을 타고 가다 트럭이 덜컹거리는 바람에 크게 다쳤다. 또한 엉덩이에 종기가 생겨 몇 달간 고생을 했다.

홍콩의 위안소 실태는 광둥의 위안소와 비슷하였다. 위안소 건물은 군인들이 개인의 큰집을 빼앗아서 합판으로 칸을 막아 만든 곳을 사용하였다. 군부대에서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집이 드문드문 있었다. 홍콩의 위안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사람이었고 심부름하는 사람만 홍콩사람으로 바뀌었다. 그후로도 장소가 바뀔 때마다

심부름하는 사람은 현지사람으로 바뀌었다. 홍콩에서 약 석달쯤 있다가 증인은 군인들의 뒤를 따라 싱가포르로 가게 되었다.

이때 싱가포르를 포함하여 말레이시아 반도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지역을 점령하여 경비한 것은 피고인 야마시타 도모유키(山下奉文)사령관이 지휘하는 제25군이었다. 제25군 예하부대는 근위사단, 제5, 18, 56사단 등 이었다. 이 부대들은 1942년 2월 15일 싱가포르 점령직후부터 화교학살을 시작하면서 그 기간 중에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반도 각 주요도시와 주변에 위안소를 개설하여 조선인과 중국인 여성 등을 이송하여 위안부로 삼았다.(林博史, 「マレー半島における 日本軍慰安所について」 등 논문 참고) 싱가포르 근방의 조홀주에서 위안소 개설에 동원된?? 근위보병 제5연대의 下崎吉三郎(자료)에 의하면 1942년 4,5월 경 개설되어진 위안소에는 광둥에서 있던 일본인과 조선인 여성이 왔다고 한다. 1942년 8월25일 제25군사령부의 공문서에는 이곳에 온 조선인이 196명이었고 위안부(조선인만은 아님)가 194명이라고 하였다. 말레이시아반도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를 관할하고 있었던 것은 일본군 제25군이었으므로 피해자 김복동은 제25군 관할지역 위안소에 있었던 것이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반도의 군위안소 규정에 의하면 군정감, 지방장관 등의 군정조직이 위안소의 설치와 운영, 위안부의 모집, 취업조건 등에 대하여 결정하고 위안소를 총체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하야시 논문에 수록?된 자료 첨부)

피해자 김복동이 있었던 싱가포르의 위안소는 군부대에서는 조금 떨어지고 민가에서는 외진 곳이었다. 3층짜리 양옥집 네채를 철창으로 막아놓고 입구에 보초가 지켰다. 이전 위안소와 비슷한 환경이었고 위안소 건물은 기다랗게 지어진 집에 칸막이만 쳐져 있었다.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와서 문 앞에 내리면 각기 흩어져 위안소 건물내로 들어갔다. 위안소 건물에서는 멀리 대포소리가 자주 들렸다. 싱가포르에서는 가끔씩 산 속 깊은 곳의 군부대로 출장을 가기도 했다. 군인들이 호위하고 위안부 10명쯤 함께 갔다. 이동할때는 줄곧 포장이 쳐져있는 트럭을 타고 갔기 때문에 바깥을 내다보지 못했다. 천막 하나를 임시 위안소로 만들어놓고 천막 속을 함판으로 칸을 나누어 서너명씩 들어가도록 했다. 출장으로 간 위안소 책임자는 그 부대에 따로 있었다. 하루종일 거의 누운 상태로 군인을 받았고 일주일정도 있다가 위안소로 돌아오곤 했다. 싱가포르에 몇달 있다가 다시 이동하였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말레이지아 자바 등으로 계속 이동하였다. 배나 트럭을 타고 하루종일 또는 며칠을 가곤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있던 곳은 다시 싱가포르였다.

패전시 피해자 김복동은 싱가포르 위안소에 있었는데 그 때의 제7방면군 사령관은 板垣征四郎이었다. 1944년 남방군사령부가 싱가포르에서 마닐라로 이전하고 같은 해 7월 싱가포르에 피고인 도히하라켄지土肥原賢二대장을 사령관으로 하는 제7방면군이 신설되어져 그 예하에 제25군(사령관 타나베 모리타케 田邊盛武중장)이 수마트라방면에, 제29군(사령관 이시구로石黑貞藏?중장)이 말레이시아방면에 배치되었다. 1945년 5월경까지 연합군에 의한 반격이 있었지만 전쟁 말기까지도 싱가포르 지역 위안소는 번성하였다.

증인이 고통스런 위안소 생활을 계속하던 중 어느날 갑자기 위안소에 군인들이 오지 않았다. 위안부들은 위안소를 관리하던 조선남자의 밥을 해주면서 위안소에 그대로 있었다. 한 보름쯤 지난 어느날 일본군인들이 빨간 십자가 그려져있는 차를 타고 위안소에 와서 증인을 태우고 떠났다. 이때 조선남자는 어디론가 도망가버렸다. 증인은 그때까지도 해방이 된지도 모르고 있었다. 일본군인이 데리고 간 곳은 싱가포르 주재 제10육군병원이었다. 그곳에는 이미 300여명의 여자들이 있었다. 일본군인들은 간호훈련을 시켰다. 그외에 병원청소도 하고 환자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헌혈을 강요당하였다.

일본 패전 후 일본군인에 의해 증인이 제10육군병원에서 간호훈련을 받은 것은 제7방면군 참모 이마무라 유타카 今村豊가 「1945년 9월 1일 현재 환자는 3040명, 간호부는 560명(내

일반 방인여자를 임시간호부로 하여 300명)이었다」(『제7방면군 復員史』 방위청도서관 장)라고 한 임시간호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일본군이 군위안부를 임시 간호원으로 만들었다는 피해자 증언은 자주 눈에 띈다. 그것은 간호원이 부족해서 군위안부를 그렇게 돌린 것이 아니라 연합군의 눈을 속이기 위한 목적도 다분히 작용하였던 것으로 본다.

일본이 패전한 이후에도 피해자는 일본군 마음대로 군 간호부로 배치되어 강제노역당하고 있던 어느날, 이종사촌 형부 오봉순이 찾아왔다. 그는 군속으로 남양을 오게 되었고 어머니의 부탁으로 사진을 가지고 그녀를 찾아주었던 것이다. 형부의 도움으로 미군수용소로 옮긴 후 몇 달을 걸려서 부산에 귀향하였다.

귀국후 집으로 돌아왔으나 어머니에겐 병원에서 간호부생활을 했다고만 말했으나 어머니의 시집가라는 성화에 못이겨 위안부생활한 것을 고백할 수 밖에 없었다. 어머니는 증인의 고백으로 심장병을 얻었다. 어머니의 애원으로 결혼을 한적이 있으나 자식도 못낳고 남편이 외도를 해서 결국 4년쯤 뒤에 헤어졌다. 그후 재혼을 했으나 남편의 사업실패후 현재는 남편도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혼자 살고 있다.

참고자료

한국정신대연구소, 정대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1997

증인 하상숙(가명)

하상숙은 1928년 충남 서산에서 태어났다. 여동생과 남동생이 한명씩 있었다. 부모님은 엿을 만들어 팔았다. 소학교를 보내줬는데 공부를 하기 싫어했다. 소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폐병으로 죽었다. 그사이 여관을 했던 엄마는 돈이 없어 여관을 이모에게 팔았다. 그후 어머니는 예산으로 재가했다. 열두살 때 진남포로 남의 집 아기보러 간 것을 시작으로 일을 시작했다. 1년간 애기를 본 후 돌아와 공장에 다니기도 했다.

열네살 먹던(1944년) 어느날 이웃의 언니에게 놀러갔더니 옷을 잘 입고 화장을 하고 있었다. 어디서 돈을 벌었냐니까 일본 공장에 갔다왔다고 했다. 이번에는 중국 상해에 간다면서 같이 가겠냐고 물었다. 가겠다고 했더니 며칠 후 조선인 남자 2명이 집으로 찾아왔다. 일본갈래, 중국갈래 하고 묻는 남자들에게 중국으로 간다고 했다. 엄마는 만주는 멀다고 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도 가겠다고 우겼다.

집 떠날 때가 6월 무렵이었다. 조선인 남자 두명이 증인을 데리고 기차로 경성까지 와서 장충단 근처 여관으로 데려다 줬다. 여관에는 주인부부와 먼저 온 여자들 5명이 있었다. 그들은 증인보다 나이가 많아 보였다. 나중에는 여자들이 모두 40여명이 되었다. 경상도에서 온 여자들이 제일 많았다. 언니들이 거기 가면 '헤이파이(병대)'들 환송해주는 소리도 하고 창가도 하는 위문단으로 간다고 했다. 주인 부부가 기미코라는 이름을 지어줬다.

경성에서 기차를 타고 갔다. 기차 안에 군인들도 있었다. 평양, 텐진天津을 거쳐 난징南京까지 갔다. 텐진에서 기차를 갈아타기 위해 하룻밤을 잤다. 닝징에서 반달 쯤 있다가 배를 타고 안휘성의 무호에서 다시 반달쯤 있다가 우한武漢으로 들어갔다. 배에 탄사람은 군인들이었고 민간인은 전부 조선사람뿐이었다.

漢口에 내린 것이 1944년 12월 쯤이었다. 30분쯤 걸어서 적경리에 도착했다. 여자들이 40여명 같이 왔다. 여자들이 20명이 어느 집에 들어갔다. 그 집 이름은 [三成樓]였다.

주인부부는 평양사람이었다. 처음에 가서 의사에게 검사를 받았다. 어린애 못 낳게 하는 주사를 맞고 약도 먹었다. 그리고 병참 위안계로 출두했는데 여자 나이가 18살이 넘어야 허가장을 내렸으므로 증인의 나이를 올려 18살이 되었다.

위안소는 2층이었다. 적경리에 들어가서 세 번째 집이었다. 방은 모두 20개 정도로 다다미 방이었다. 처음에 일본군 병사 세명이 들어왔다. 이후 일본인 군인만 들어왔다. 보통 하루에 10명에서 15명이 들어왔다. 군인이 돈을 증인에게 주면 주인에게 갚아주고 삿쿠와 휴지를 받았다. 돈의 액수는 중국돈 1원, 2원이었다. 주인이 장부에 기록했다.

일요일에는 군인들이 바깥에서 줄서서 기다렸다. 군인 한 사람을 받는 시간은 보통 1시간이었다. 군인 중에 두 번 하겠다고 하는 걸 증인이 거절했더니 때린 군인도 있었다. 또 술 먹고 와서 죽인다고 위협하는 군인도 있었다. 삿쿠를 안쓰겠다는 군인과 싸움을 하기도 했다. 군인들이 위안부들에게 불만이 있으면 주인에게 항의했고 그러면 주인은 나무 몽둥이로 때리고 발길로 찼다. 당시 부대 이름 중에 사쿠라 부대가 기억난다.

목욕탕이 있어서 한 사람과 관계하고 나면 목욕탕에서 가서 약물로 씻었다. 월요일마다 적경리 안에 있는 병원에 가서 성병검사를 받았다. 검사하기 전날 여자들끼리 오리주둥이 같이 생긴 기구로 서로 봐줬다. 병이 있으면 주인이 싫어하기 때문에 먼지를 숨에 묻혀서 조금 발랐다. 그러면 병이 있더라도 검사에 통과할 수 있었다. 매독에 걸린 여자들은 병원에 입원해서 606호 주사를 맞고 보름정도 지나면 나왔다.

쉬는 날도 없었고 위안소 밖으로 외출하지 못했다. 한달에 한번 적경리 철문 밖에 있는

목욕탕에 갔다. 밥은 중국인들이 해줬는데 하루에 두끼 먹었다. 주인이 옷과 화장품을 사줬지만 돈을 주지는 않았다. 처음에 증인을 그 집에 데려다 준 조선인 남자에게 그동안 쓴 기차값과 옷값을 주었는데 그게 증인 빚이 되었다. 그걸 갚으려면 3년은 일해야 한다고 했다.

어느날 아침에 일본이 전쟁에 졌다고 옆집에 있는 일본여자들이 울고 있었다. 군인에게서 받은 돈은 쓸 수가 없어 다 버렸다. 조선 사람은 적경리로 모였다. 조선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이 몸으로 조선으로 가서 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으로 안간다고 했다.

이후 증인 하상숙은 중국에서 아이 셋 딸린 중국남자와 결혼해서 의붓어미 노릇을 했다. 조선국적을 유지한 채 지금까지 중국 무한에서 살고 있다. 고향에 한번 다녀오고 싶지만, 국적문제로 수속이 어려운 상태이다.

한구의 육군특별위안소 적경리는 이미 1938년 11월에 개설되었다. 증인 송신도의 경우에서 보았듯이 이 지역 위안소는 일본군의 감독하에 있었는데 1943년 3월부터 패전까지 한국 병참사령부 위안계장이었던 야마다 세이키치(山田清吉: 『武漢兵站 - 支那派遣軍慰安係長の手記』, 圖書出版社, 1978)에 따르면 위안부가 새로 도착하면 주인과 함께 병참위안계로 출두했다. 이때 본인의 사진, 호적등본, 계약서, 부모의 승낙서, 경찰의 허가서, 신분증명서를 가지고 와야했다. 이것으로 위안계의 하사관이 신상조서를 만들어 헌병대로 회부하였다. 그에 의하면 1943년 적경리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위안소 9채, 조선인이 경영하는 위안소 11채가 있었다. 일본인 위안부 130명, 조선인 위안부 150명이 있었다고 한다. 1944년 11월 현재 이 지역 책임자는 지나파견군 총사령관 오카무라야수지(岡村寧次), 제6방면군 사령관 오카베 나오키(岡部 直三郎)이었다. 이들은 1932년 일본육군 최초라고 일컬어지는 위안소를 창설한 인물들이다.

참고문헌

한국정신대연구소.정대협, 『중국으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한울, 1995

증인 박영심

박영심: 1921생인 증인 박영심은 평양 근교에서 17살 때(1938년 3월) 군 병원에 일자리가 있다는 일본 순사에게 연행되어 15명의 처녀들과 함께 평양역을 출발하여 난징(南京)에 끌려갔다가 위안부가 됐다. 난징의 3층으로 된 벽돌집 금수로 위안소였다. 여기서 우다마루라는 일본이름으로 불리워졌다. 일본군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당장 죽일려고 하는 위협 하에서 위안부로 강요되었다. 다른 위안부 중에서 병에 걸리거나 영양실조에 걸리면 어디론가 실려가거나 강물에 처넣어 죽이곤 하였다. 이곳에서 약 3년간 있었다.

당시 남경에는 남경대학살 대강간을 행한 中지나방면군(사령관:마쓰이松井石根)이 1938년 2월 중지나파견군으로 편성되어 주둔하였고, 1939년 9월에는 이를 폐지하고 중국주둔의 일본군을 통일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西尾壽造대장을 총사령관으로 하는 지나파견군사령부가 남경에 창설되었다. 畑俊六, 山田乙三, 西尾壽造은 증인 박영심이 3년여 있었던 남경지역 책임자인 중지나파견군사령관 및 지나파견군총사령관이었다.

3년 이상을 지낸 후 일본군 병사 2명의 호송을 받으면서 상하이(上海)로 가서 싱가포르를 거쳐 미얀마의 라슈의 위안소로 끌려갔다. 여기서는 2년간 있었다, 여기서는 와카하루(若春)라는 예명으로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미얀마는 1942년 1월말에 寺内壽一을 사령관으로 한 남방군 예하 제 15군(사령관 飯田祥二郎중장)의 제 55사단, 제33사단이 육로로 침입하여 3월 8일 랑군이 점령되었다. 이어서 제 56사단, 제18사단도 해로로 랑군에 도착하여 5월 18일 제 15군에 의해 전 미얀마가 점령되었다.

제 56사단은 1942년 3월 랑군에 상륙하여 라시오, 미트키나로 북진하여 5월에는 운남성 Unnan 騰衝(Tengchung,騰越이라고도 부름)까지 침공하여 **송산(松山)의** 라모(拉孟)에 진지를 구축하였다. 그 후 패전까지 수개소에 분산 주둔하였다. 피해자 박영심은 라시오에서 다시 1944년 **송산(松山)**으로 보내졌는데 이때 제56사단에 배속되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제56사단(사단장 松山祐三)은 이때 미얀마방면군(1943년 3월신설, 사령관 河辺正三) 예하 牟田口廉也를 사령관으로 하는 제15군 지휘하에 들어갔다. 1944년 4월에는 本多政材(-패전)을 사령관으로 하는 제33군의 신설과 함께 제 56사단은 그 예하로 재편성되었다.

박영심이 1944년 송산의 위안소에 가게 되었을 무렵의 라모(拉孟)수비대는 제 56사단의 보병 제 113연대였다. 이 라모(拉孟)수비대는 중국Unnan雲南원정군과 싸워 1944년 9월7일 전원 전사하였다. 그 수일 전에 조선인 위안부들과 함께 방공호에 숨었던 피해자 박영심은 중국군에 의해 포로가 되어 Kunming昆明 포로수용소로 보내어졌다. 그때 조선인 위안부 생존자는 4명뿐이었다. ?

피해자 박영심과 관련하여서는 사진과 그때를 기억하는 증언자가 남아있다. 1944년 미국인 종군기자 Walter Rundle (United Press)가 **China Burma India Roundup**(중국 미얀마 인도전선의 미군을 위한 신문) 1944년 11월 30일자에 쓴 기사는 이때 생존한 이들에 대한 것이다. 이것은 박영심이 버마에 오게 된 경로는 좀 달라 생존자들 전체의 경험은 아니라고 보지만 당시 송산에 있었던 위안부들의 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들에 의하면 1942년 이른 봄 일본 군속이 평양 동네에 나타나 선전 포스터와 연설로 여군(Women's Army Corps) 모집 캠페인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후방에서 일본군의 숙소관리, 위문활동,

병원에서의 간호조무와 같은 비전투 작업을 위해 싱가포르로 보내질 것(이라고 하였다).....(송산에 와서는)모두 24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이들은 그일 외에 일본군 옷 세탁과 요리, 그리고 이들이 기거하던 동굴을 청소하는 일도 해야 했다. 이들은 일의 대가도 받지 못했으며 가족으로부터 우편물도 전혀 받아보지 못했다고 했다. 중국군이 송산을 공격했을 때 이들은 지하 땅굴에서 살고 있었다. 24명 중 14명은 포격으로 사망하였다. 이들은 중국군에게 생포되면 고문을 당할 것이라 들었으며 모두들 이 말을 그대로 믿었다고 털어놓았다.](별첨자료)

송산에 있던 조선인 위안부들은 일본인 매춘여성 아래에 노예적 상태에 있으면서 끊임없는 이데올로기적 세뇌공작의 결과 탈출에 대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생명을 위협받으며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일본측에서의 조사에 의하면 별첨 사진은 9월3일 중국군에 의해 송산에서 발견된 [위안부]에 대한 증언자가 있다. 증인 박영심은 사진속의 임부이다. 라모수비대의 생존자인 제56사단 병사 하야미(早見正則)는 수비대 전원전사 직전 탈출에 성공하였으나 중국군에 의해 포로가 되었는데 곤명수용소에서 사진속의 위안부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는 와카하루를 기억하고 있었다.

박영심은 昆明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1946년 2월 인천을 거쳐 귀향했다.

참고자료

<중군위안부> 및 태평양전쟁피해자 보상대책위원회, 『깃뿔한 인생의 웨침』, 평양, 1995
니시노 루미코(西野瑠美子) 『從軍慰安婦と十五年戦争』, 明石書店, 1993

『China Burma India Roundup』 1944년 11월 30일자

방선주, 「騰衝(騰越)섬멸전중의 한인위안부들」, 『정신대연구소 소식』, 2000.10, 11월 일본기소장에서 참고

증인 송신도

증인 송신도는 1922년 충청남도 논산군에서 태어났다. 12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16세 때, 어머니로부터 결혼을 권유받고, 첫날밤이 싫어 식을 올린 날 밤, 옷만 입은 채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친정에 사는 것도 불가능해서, 증인은 충청남도 대전의 아는 사람 집에 몸을 맡겼다. 대전에서 자수 등으로 하여 간신히 생활했다.

1938년 중년의 조선인 여성에게 「전쟁터에 가서 일하면 돈을 번다.」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고도 혼자서 살 수 있다.」 고 권유받았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려고 했던 증인은 그 사람의 제안에 응락하였다. 이때에는 「위안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조선인 여성과 평양까지 갔더니 10대 후반이라고 생각되는 여성들이 다수 모여 있었다. 가는 도중에도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평양에서는 조선인 남성이 데리고 갔다. 국경을 넘어 한코우漢口를 거쳐 발음?武昌으로 끌려갔다. 증인이 武昌에 간 시기는 1938년 말경으로 일본군이 우한武漢공략한 직후일 것이다. 武昌에 도착하여 증인이 끌려간 곳은, 육군전용 군 위안소였다. 군 위안소의 건물은, 기와집의 커다란 이층건물이었다. 원래는 중국인 상점이었던 건물을 개조한 것처럼 보였다. 막 전쟁이 끝난 직후였다. 「위안부」들은 시체 처리까지도 해야만 했다. 증인도 벽에 있는 혈흔을 씻어내는 일을 해야만 했다. 군위안소로의 개조작업은 목수 출신의 군인이 하였다. 이 군 위안소는 「세계관」이라는 이름이었다. 武昌에 도착하자 성병검사를 받았다. 이 시기 처음으로 증인은 자신의 집을 나와 혼자서 되어 일을 하기 위해 멀리까지 왔는데 어떤 것일까 증인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세계관」의 「주인」은 키가 작은 조선인 남성이었다. 武昌에는 그 위에 「야마토관」 「코토부끼관」이라는 이름의 군 위안소가 있었다. 「세계관」에는 십 수명의 「위안부」가 있었고, 모두 조선인이었다. 그러나 조선어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안부」들끼리도 친하게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증인은 「세계관」에서도 가장 어렸고 생리도 본 적 없는 아이였다. 처음으로 군인의 상대를 해야만 했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 지도 모르고, 계속 울고 도망쳐 나왔다. 처음으로 증인의 방에 들어온 타카하시 장교는, 증인이 울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런데 그 장교는 그것을 사무실에 이야기하여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증인에게 불같은 화를 냈다.

사무실에서 혼이 난 증인은 그곳 지리도, 말도 모르고, 돈도 없고, 기차를 타는 방법도 모른 채, 주위를 군인에게 둘러싸여,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그래도 막상 군인이 들어오자 너무 싫고 두려워, 또 울면서 도망쳤다. 증인은 업자로부터 뺨을 맞아 코피를 흘리고 식사를 하지도 못하고 좁은 곳에 갇히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히 도망쳐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증인은 울면서, 군인의 성욕처리의 도구가 되었다.

군위안소의 「위안부」에게는 군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그 허가가 내리기 전부터 「세계관」에는 군인이 쇄도했다. 군 위안소의 이용자는 군인에 한정되었다. 이때 온 군인은 제6사단, 제9사단 등에 소속된 이들이었다. 제 6사단, 제9사단은 제11군 예하부대로서 당시 제11군 사령관은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 1938.6-40.3, 이후 제6방면군, 지나파견군총사령관에 종사)였다. 그 상급 중지나파견군사령관 하타준로쿠(畑俊六 1938.2-12)였다.

여기서 증인은 「카네코(金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매일, 십 수명이나 되는 군인을 상대를 해야만 했다. 생리를 할 때에도 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특히, 일요일에는 군인

증인 신문. (사관 증인. 목숨?)

이 많았고 군인들은 일방적이고도 야만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한 생활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위안부」들은 너무 지쳐 군인의 요구를 거부하려고 하면, 칼로 위협을 받거나, 맞는 등 폭행을 받는 것이 종종 있었다. 증인의 몸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다. 그리고 증인의 오른쪽 귀는 들리지 않는다. 증인의 신체에 남아 있는 「위안부」 시절의 상처이다. 더욱이 자포자기가 된 군인 가운데에는, 적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라면 여기서 죽고 싶다며, 증인에게 같이 할복자살을 할 것을 강요하는 자도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고 싶은 증인에게 있어서는, 할복자살 강요는 매우 두려운 것이었다.

군 위안부 중에는 결핵, 말라리아, 성병 등 병에 걸린 이도 있었다. 환자는 별도로 마련된 작은 방으로 옮겨졌다. 적의 포탄에 맞아 죽은 자도 있다. 병 때문에 군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 때문에 주인에게 맞아, 절망하여 화장실에서 크레졸 원액을 마셔 자살한 「위안부」, 목매달아 죽은 「위안부」도 있었다.

군 위안소에서는 「사쿠(콘돔)」의 사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군인 가운데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도 많았다. 그 탓에, 임신된 「위안부」도 많았는데, 임신해도 휴가는 허락되지 않았고, 내쫓기기도 하였다. 증인도 임신했지만, 계속 성행위를 강요당해, 첫 번째 임신에서는 7개월 쯤에 사산하였다. 그 때, 증인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서 출산했다. 겨우 아이의 몸을 증인의 몸에서 꺼낼 때에는, 아이는 포도색이 되어 죽어 있었다.

이렇게 증인은 군 위안소에 감금되어, 조직적, 집단적, 지속적으로 강간된 것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불능한 정도로 깊게 상처받았다.

증인은 약 3년간 「세계관」에 살았지만, 임신했기 때문에, 내쫓겼다. 한코우(漢口)의 해군위안소에서 세탁·청소 등의 잡일을 하면서 출산한 후, (중국식 발음 확인요)(岳州)(카쿠슈)로 옮겨졌다. 漢口에서 출산한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졌다. 岳州에서도 군 위안소에서의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 외에, --安寧(안니이), 長安(초안), 호킹 등, 각지의 위안소에 끌려갔다.

더욱이 그 군위안소는 특정 부대 소속으로서 위안부들은 각 전쟁터에 끌려다녔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이러한 경우에는 군의가 없었기 때문에 성병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아 성병 감염의 위험에 늘 노출되어 있었다.

점차 전쟁 상황이 엄해지게 되어, 「위안부」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 갔다.

일본군은 중국군의 포로 살해장면에 「위안부들」을 세웠다. 구멍을 파고, 그 앞에 포로의 눈을 가리고 포로를 군도로 죽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잔학 행위를 본 후에, 증인은 파티에서 술을 따라야만 했다. 또한 부대가 비어서 경비가 허술해지면, 「위안부」도 보초를 서야만 했다. 중국군이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생활하였다.

이러한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한 것에도 상관없이, 증인과 그들에 대해 금전적 지불이 거의 없었다. 부대소속의 경우는 명목상의 「금료」조차 없었다. 수입이 조금 있었을 때도 「국방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가서 실제로 증인의 손에 남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武昌을 떠난 이후, 각지의 군 위안소를 전전하는 가운데 증인은 漢口에서의 출산을 포함하여 두 번 출산했지만, 두 번째 출산 후 아이는 곧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만 했다. 그 외에도 임신했지만, 임신하면 내쫓기기 때문에, 자신 혼자서 민간요법(임신2개월 무렵, 3일간정도 식사를 하지 않고, 어떤 식물의 뿌리를 씹어 마신다)으로 중절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증인에게서는 자식을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일절 허락되지 않았다.

1945년 8월 증인은 군 위안소에서 일본이 패전을 알았다. 군은 「위안부」들에게 패전을

알리지 않고 방치했다. 이 무렵 다른 부대(독립 혼성제17여단)에 있던 한 일본군인이 같이 가자고 하였다. 증인은 조선에 돌아갈 방법도 모르고 생명을 지킬 아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으로부터 방치되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 그 일본군인 함께 일본에 가 결혼하는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일본인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중국을 벗어나자마자 증인을 버렸다.

7. ?
1. < 일본군으로부터 방치된 전 「위안부」의 상황은 비참함의 극치였다.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국인과 함께 사는 경우도 있었고 중국의 군인에 몸을 파는 여성도 있었다. 증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 남성과 함께 되어, 일본으로 간 조선인 여성도 있었다.

증인은 일본에서 버려진 이후 제일 조선인 남성의 소개로 제일 조선인 H가 하고 있는 식당에서 취사 일을 하게 되었다. 이후 H가 사망할 때까지 증인은 H와 함께 생활한 (증인은 H와는 성적관계가 전혀 없었다.). H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H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도, 밤마다 술을 마시는 날이 계속되었다. 꿈에는 언제나 전쟁터가 나타났다. H의 사후 가족도 없이, 중국에 두고 와야 했던 두 명의 아이에게로 죄책감을 안고, 혼자 생활했다.

이상처럼 증인은 일본군에 의해 16세부터 23세까지의 7년 간, 「중군위안부」로서 인간의 자유, 성적자유를 철저히 박탈당한 성적 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고, 그 사이 항상 생명의 위협에 시달렸고, 전후에는 조선에 귀국할 방책도 부여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일본에서의 생활을 할 수 없이 해야만 했다.

일본군, 일본정부 책임과 관련한 자료

1) 武昌에 위안소가 개설된 경위

武昌은 1937년 12월에 中支邦 방면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 대본영은 1938년 8월 22일에 中支邦 파견군에 대해 漢口부근의 요지 공략점거를 명하고, 武漢(武漢은 漢口, 武昌, 漢陽의 세 도시) 공략작전이 발동되었다. 9월 28일 재상해 총영사관대리로부터 외무대신에게 연락 회의 결정 사항으로서 「『漢口공략후 邦人(일본인, 조선인, 대만인을 지칭-주) 진출에 관한 응급처리요강』 송부의 건」이 보내졌다. 이것에 의해 거류민 이외의 진출은 복귀희망거류민의 수송에 여유가 생긴 다음부터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군대위안소 개설을 위해 진출하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다고 되어 있었다. 즉 「군위안소개설」을 위해서라면 수송에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하였다. 이것은 10월 26일에 中支邦파견군의 주력인 제11군의 漢口 점령, 10월 27일에는 武漢 3진 점령 이전의 일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武漢점령 직후 일본군은 「위안소」개설을 위해 위안소업자에게 특별 편의를 꾀하였음은 물론이다.

11월 3일에 中支邦파견군의 제2군이 漢口에 입성하고, 漢口·漢陽의 경비를 맡았다. 같은 해 12월 10일자로 출동한 제2군사령부 「제2군 상황개요」에 의하면 「외출은 경비 제일주의에 기초한 인솔 외출, 위안소 출입을 위한 외출 이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고 위안소는 11월 25일로 개시하여 표 제도에 의해 혼잡을 방지하고 황군의 면목을 유지하는 것에 주력하여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일본군이 군위안소 개설과 운영 등에 깊이 관여한 것을 보여준다.

이상의 경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漢口병참사령부소속의 군의를 지낸 나가자와 켄이치(長澤健一)는 「武漢함락과 함께 상해, 남경에서 대기하고 있던 매춘업자들은, 위안부를 데리고 계속 武漢을 목표로 하여, 양자강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파견군은 그들을 군수품취급하고, 우선 수송했다」(『漢口위안소』50p.) 「쇼우와 13년(1938년) 11월 중순 漢口 병참 사령부는, 상급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위안소로 할 가옥을 선정하여, 여성들을 데리고 오는 위안소업자를 입거시키고, 위안소 개설까지 하게 되었다」(같은 책, 55p)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같은 책에 의하면 군은 병참 업무의 일환으로서, 위안소의 이용규정·요금의 제정, 정기적 성병 검사, 漢口위안소 조합의 조직화 등도 포함하여, 위안소의 관리·통제·운영을 하였다. 그 후, 이 漢口위안소는 「그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 支那과전군에 부수된 것으로 패전의 날까지 계속 번성했다」(같은 책, 62p) 라고 하였다.

漢口の 대안에 있는 武昌의 위안소도, 漢口の 위안소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설되었다고 추정된다. 漢口에서 위안소가 개설된 직후의 11월 30일 현재의 「직업별통계표」(재漢口총영사관)에 의하면, 漢口에서는 여관 요리, 藝妓, 위안소의 신규본업자가 남17, 구본업자가 남2, 漢口の 신규 「藝妓, 작부, 창부, 기타」가 그 수 150명이지만, 이것에 비해 武昌의 여관 요리, 藝妓, 위안소는 신규본업자가 남33, 武昌의 신규 藝妓, 작부, 창부, 기타는 245명에 달하고 있었다. 이 자료로부터, 漢口에서 위안소가 개설된 거의 같은 시기에 武昌에도 위안소가 새로이 개설되었다는 것, 반드시 「위안부」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藝妓, 작부 등 사람 수는 漢口를 웃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쇼우와 13년 재漢口총영사관 경찰사무상황」 등 일본정부의 자료에 의하면 모두 군위안부는 아니지만 武昌에는 245~292명의 관련 여성들이 있었다.

또한, 이미 언급한 군의 나가자와 켄이치는 「武昌과 漢口の 병참 사령부는, 어느 곳도 쇼우와 13년 8월, 武漢 함락과 함께 개설된 것으로, 업무의 종류, 규모는 비슷하고, 위안소도 청구받았다. 경영자는 대부분 내지인이었고, 위안부는 조선인과 일본인 혼합으로 약200명 있었다. 성병검사는 키타무라(北村)군위가 담당하고, 漢口와 마찬가지로 경영도 감독도 했다」(전개서 220p)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武昌위안소 개설의 경위는, 증인이 전술한 것처럼 漢口를 거쳐 武昌에 도착한 것은 武漢공략 후부터 군 위안소가 개설된 사이의 11월경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2)武昌의 위안소 「세카이간(世界館)」

증인이 약3년 간 있었던 武昌의 위안소의 모습은 전술한 대로이다. 武漢공략작전을 수행한 中支那과전군의 주력인 제11군은, 오카무라를 사령관으로, 제6·제7·제27·제101·제106의 오개 사단과, 쯔다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漢口를 점령후, 대본영은 武漢주변지역을 작전의 한계로 하고, 그 이상 전선의 확대를 막기 위해, 작전에 참가한 각 사단은 武漢주변 지역에서 경비체제로 바꾸어, 제2군은 전투서열을 해제, 제2군사령부는 일본으로 귀환되었다. 「支那사변특군작전(2)」에 의하면 武漢지구경비를 담당한 제11군 가운데 제6사단은 武昌지구를, 제9사단은 武昌 주변지역을 경비하고 있었다.

증인이 있던 「세계관」은 「군(군인·군속)전용의 위안소」로 「도시 등에서 군이 인가(지정)했던 위안소」에 해당한다. 군은 漢口·武昌의 위안소에 대해, 「위안부」 징집·도항으로의 군·헌병대·총영사관의 관여로부터, 군에 의한 업자·「위안부」의 이송·관리규칙·요금·이용시간의 제정, 위안소시설의 제공, 업자·「위안부」의 통제, 군의에 의한 정기적 성병 검사, 부대장교에 의한 관리·감독·경영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漢口·武昌의 위안소는 비록 민영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운영에 관해서도 군이 관여하고 있고, 주체는 군이었으며, 민간업자는 그에 따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전형적인 군위안소 예였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在日の慰安婦 裁判を支える會, 「宋信道 訴狀」 「在日元從軍慰安婦, 謝罪.補償請求事件 訴狀」, 1993

나가자와 켄이치(長澤健一), 「漢口위안소」圖書出版社, 1992

증인 김군자

김군자는 1926년 강원도 평창에서 출생하였다. 딸만 3명 중 맏딸이었다. 농촌에서 보통 정도로 살았으나 딸들 모두 무학이었다. 10세에 부친 사망 후 어머니는 큰집 작은 오빠를 양자로 삼았으나, 양자가 재산을 모두 차지하였다. 11세에 어머니는 딸 셋을 데리고 주문진 친정으로 이주하였다. 둘째는 남의 집에 보내고 어머니는 막내 데리고 친척이 있는 신리라는 곳에 가서 떡 장사 등 하며 살고, 나만 외가에서 3년 살다 어머니에게 갔다. 그곳서 1년 살다 어머니 사망한 후, 주문진 이모집에 있다가 16세에 강원도 철원 최철지(순사)에게 양딸로 가게 되었다. 이모네가 아는 쌀장사 소개로 갔는데 최씨는 첩과 살았다. 거기서 1년 정도 살았는데, 수양아버지가 나를 기미코라고 불렀다.

17세인 1942년 3월 수양 아버지 최씨가 시키는 대로 서른 땃썸 되는 한국 남자를 따라 갔다. 그 남자는 군복 같은 옷을 입었으나 군인은 아니었다. 그는 전에도 한번 온 적이 있었으나 아무 것도 모르고 심부름 시키는 줄 알았다. 화물차를 타고 보니까 차 안에 7명의 여자가 다른 40썸 되는 비슷한 복장의 한국 남자와 함께 있었다. 화물차 바닥에 앉아 하루 낮 하루 밤을 간 듯, 내려서 기다리고 있던 군인 트럭 타고 한참 갔다.

1941년 7월, '관동군특수연습'이라는 이름하에 병력대동원이 있었고 이 때 조선인 위안부 3000명 징집하였다. 이때 관동군의 요청하에 조선총독부가 군위안부를 동원하였다. 당시 군위안부 동원을 요청한 관동군의 사령관은 梅津美治郎(임기 1939.9-44.7)였다. 조선총독은 ----이었다. 증인 김군자가 순사인 양아버지가 보낸 것으로 보아 이 사실은 두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로 군위안부 징집명령이 경찰계통을 타고 내려와 증인이 연행되었다. 둘째로는 양아버지가 군동원을 맡은 업자와 개인적으로 연결되어 증인을 군위안부로 넘겼다. 이 같은 설정이 가능하는데 그 어느 것이나 당시 조선과 만주 국경선을 넘고 게다가 소련과의 접경지역으로 여성들 여럿을 데리고 들어 간다는 것은 조선총독부와 일본군측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증인이 조선에서 간 곳은 바로 만주 훈춘이었다. 옛날 여관 같은 이층집에 내렸는데, 여자들이 9명인가 더 있었다. 그곳에 1년 반쯤 있었다. 문에는 긴가쿠 이안조라고 간판이 붙어져 있었다. 사각형 이층집에는 방이 많이 있었다. 나는 1층에 방 1개에 배치되었다, 나를 끌고 간 남자가 그 아내와 같이 그곳에서 주인 노릇하였고, 또 다른 한남자도 종업원인지 함께 살았다. 사무실에는 주인 남자가 앉아 오는 사람 체크하였다. 그들은 여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감시하였다.

도착 후 2, 3일 후부터 군인들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 거부했다가 귀를 얻어맞아 오른쪽 고막이 터졌고 피가 흐르는 것을 그냥 뒤 지금까지 잘 안 들린다. 토요일 서너시부터 군인들이 오고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밤 7시까지 많이 왔다. 혼자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트럭 타거나 걸어서도 왔다. 장교가 인솔해서 조로 왔다. 군인들은 사무실을 거쳐 방방이 줄을 서 기다렸다. 100명이 넘어 바글바글했다. 걸을 수도 없었고 생리 때도 쉬지 못했다. 평일에는 밤에 장교만 와 자고 가기도 했다. 장교는 토, 일요일에도 밤에만 왔다. 땀을 때는 한번에 40명 정도 받고 씻지도 못하였다. 끼는 것 때문에도 아팠다. 샷쿠는 군인들이 가져오는데 터지기 때문에 안하는 사람도 있었다.

매주 금요일에 성병 검사를 하였는데 군인 트럭 타고 가 군의에게 검사 받았다. 막사로 지은 군대 안의 병원에 여자는 우리 뿐이었다. 성병(매독)에 걸려 606 주사도 맞았다. 임신도 했으나 유산했다. 기미코 또는 방번호 9번으로 불리웠다. 일본인이 싫어 일본 말은 지금

도 절대 안쓴다.

가서 몇 달 안돼 탈출을 기도한 사람이 잡혀와 주인이 본보기로 엄청 많이 때리는 것을 봐 꿈도 못꾸었다. 아편하는 사람이 이불 등을 내다팔려다 주인에게 들키면 가도기도 하였다. 나는 이후 술집에서 담배를 조금하다 바로 끊었다.

증인 김군자가 있었던 훈춘 위안소에 대한 공문서는 없지만 일본군 병사와 피해자의 증언, 사진, 지도 등에 의하면 조선인 위안소가 훈춘강을 따라 20-30채 정도 있었다고 한다. (전쟁을 생각하는회, 『피이스.저널』 제10호, 1992) 이때 김군자가 있었던 위안소는 71사단 위안소였을 것으로 본다.

증인 김군자가 훈춘으로 가기 직전 1941년 관동군은 사령부를 총사령부로 개칭하고, 제1방면군과 제2방면군을 신설하는 등 병력 증강과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목단강 제1방면군 사령관 山下奉文중장(42.7-44.9)의 지휘하에, 延吉의 제2군(사령관 上月良夫중장:1942.7-43.5)이 신설되었고 제2군의 핵심병단으로서 훈춘주둔대를 토대로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제71사단(사단장 遠山登중장:1942- 패전)이었다.

1943년경부터 패색이 짙어지며 관동군 예하 사단은 남방으로 점차 진출하였다. 군인들이 전선으로 나가면서, 트럭으로 고카시(五家子) 위안소로 옮겨갔다는 김군자의 증언과 일치한다. 고카시는 소련과의 국경지대에 있는 중요한 국경진지의 하나였다. 김군자는 1943년 고카시의 1층짜리 허름한 빈 집으로 주인 부부와 위안부 7명이 함께 갔다. 고카시는 별판이었고, 부대는 까맣게 멀리 있었다, 해방 직전 이 고카시 위안소는 127사단 관할 하에 있었다. 당시 이 지역 위안소는 축성부대에 의해 건축되었고 일요일에 군인들이 왜도했다는 축성부대 병사의 증언(『중군위안부 110번』, 39-40쪽)이 있다.

1945년 1월 훈춘 주둔 제 71사단은 대만(제10방면군)에 진출하였다. 그 직후 2월, 五家子 주둔 제 9 국경수비대는 占賀龍太郎을 사단장으로 제127사단으로 개편하였다. 이때 관동군 총사령관은 山田乙三 대장(1944년 7월-패전)이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1943년에 들어가 고카시로의 이동이 있었는데 그 후 1년 반 못돼 해방되었다. 이때 그는 스무살도 안되었을 때였다. 주인 남자가 돈도 안주고 맘대로 가라고 하여 7명이 백두산으로 한 보름 걸려 걸어 나왔다. 두만강을 건너 회령을 지나 계속 걷고 화물차 타고 하며 한달 여드레 만에 철원으로 왔다. 서울 등지에서 남의 집 살이와 장사 등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전전하다가 한 남자를 만났으나 부인이 있어 그만 두었다. 지금은 나 늙의 집에 살고 종교에 귀의하였다.

참고문헌

한국정신대연구소 정대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3권, 한울, 1999

Koga Reataro
Yun

